

취업준비생 명절나기 '이중고'

채용 규모 급감 '고용 절벽', 감염 예방 위해 도서관 운영도 제한

비용 부담 안고 독서실·스터디 카페로 발걸음... "청년 지원 확대를"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출입문에 설 명절에도 스터디카페 영업을 지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일자리는 줄고 마땅히 공부할 곳도 없어요." "올 추석엔 친지들에게 취업 인사 꼭 하고 싶어요."

설 연휴 셋째 날인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스터디 카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중앙 도서관이 문을 닫자, 취업 준비생들의 발걸음이 스터디 카페·독서실로 이어졌다.

문제집이 담긴 목직 가방을 멘 한 학생은 무인 정보 단말기에서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결제했다.

'거리 두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책상에는 1칸 간격을 두고, 각종 자적

증 관련 수험서가 4~5권씩 쌓여 있었다.

저마다 무선 이어폰을 낀 학생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각종 시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고 있었다. 어느 학생은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책에 빼곡한 글씨를 채워갔다.

공립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박모(28·여)씨는 "공공 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 방역 지침 때문에 좌석도 반으로 줄어 이용 제약이 많다"며 "아쩔 수 없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스터디 카페 내 회의실에선 공기업

을 준비하는 학생 4명이 취업 전략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인터넷 취업 정보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이들은 자격증 문제집 오답 노트를 공유하며 틀린 이유를 분석했다. 희망 기업의 지역 별 경쟁률·지원자수와 같은 취업 정보도 함께 나눴다.

휴게실에 놓인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 학생은 시사·상식 분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자취방에서 싸운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부지런히 영단어를 외우는 청년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채용이 급감, 더 좁아진 취업 관문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자투리 시간조차 허투루 쓸 수 없으며 명절 고향 방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3년 째 마케팅 회사 입사를 준비하는 박모(30)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공채 모집 인원이 반토막 났다"며 "전주에 사는 부모님께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둘러댔지만, 취업에 대한 중앙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귀성을 포기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무직 공무원에 도전 중인 이모(27·여)씨는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다. 설날에는 오전 6시30분께 잠에서 깨 손수 떡국을 끓여 먹고, 하루 10시간가량 공부했다"고 했다.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다 관공 이모

(25·여)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원을 줄이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있다. 지원 기회조차 없었다"며 "새해에는 정기적으로 채용 공고가 나는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공부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인근 편의점에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정모(27)씨는 "학교 도서관도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명절에 친구들과 만나 밥값 2~3만원 내기도 부담스럽다"며 "요즘엔 학교 동창보다도 함께 수험 공부를 하는 이들과 애환을 나누며 편의점에서 사 먹는 점심 식사가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지자체 인턴 활동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24)씨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줄이고, 도서 구입비와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내기 위해 지난해 청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높아 실패했다. 청년이 구직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도 벌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통계청의 '청년 고용률(만 15세~29세 사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전국 청년 고용률은 ▲2018년 42.7% ▲2019년 43.9% ▲지난해 42.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에선 같은 지표가 ▲2018년 39.4% ▲2019년 38.4% ▲지난해 39.5% 로 집계됐다.

오유나기자

영암농경지 화재 현장서 80대 숨진 채 발견

전남 영암의 한 논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16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마을 인근 논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서는 A(83)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농경지 5300㎡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논에서 짚을 태우다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에 질식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단속 현장서 경찰 치고 도주한 30대 자수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5분께 차를 몰다 광주 동구 계림동 편도 3차선 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B경찰을 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한 두잔 마셨다. 음주운전이 들뜬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자술서를 쓰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설 연휴 여수서 바다에 빠진 낚시객 등 2명 구조

설 연휴 중 전남 여수 앞 바다에 빠진 시민 2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여수시 국동항 수변 공원에서 A(20)씨가 바다에 빠졌다.

함께 산책 중이던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 5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경은 A씨가 발을 헛디뎠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52분께에는 여수시 남면 안도 갯바위에서 낚시객 B(44)씨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B씨는 자신이 타고 온 낚시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으며, 건강 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해경은 B씨 일행을 상대로 구제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주변의 도움이 있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근처에 있는 부유물을 던진 뒤 곧바로 해경 상황실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돈으로 바꿔줄게" ... 4억9000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화폐수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속여 현금 수 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부산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현금 4억9000만원을 넘겨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폐수집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특이한 일련번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된 신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형사과 수사요원으로 전담팀을 구성, A씨를 추적해 지난 10일 경북지역에서 검거했다.

또 A씨가 가로챈 현금 4억9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회수되지 않은 현금의 사용자 등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순천지역 도의원 보궐선거 금품혼탁선거 강력 경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위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희·신민호·오하근)가 오는 4월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선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천명했다.

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궐선거 경선과 관련하여 전남도당이 순천 지역의 모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선거 우려를 전하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 건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금전이 살포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고 여러 잡음이 들려옴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알려졌다.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해 가는 중에 이러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순천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께서 심려가

크신 상황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또한, "혼탁선거, 금품선거는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들어 결국 순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고 "이에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선거일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 구시대와 낡은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에 대한 자진신고와 신원보장 및 포상금 지급 등을 독려하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민과 더불어민주당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김정희·신민호·오하근 공동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대비로 우리 순천에 선진적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데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항상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순천 시민 및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